

■ 논문 ■

##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

권형진

### I. 식민화 초기의 더딘 인구증가

뉴질랜드는 영 제국(British empire)의 확장에서 항상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언급되어왔다. 뉴질랜드가 본격적으로 영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것도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에서 본격적인 식민이주가 진행되던 1850년대였다. 1769년 쿡 선장의 탐사보고서 이후 유럽에 알려진 뉴질랜드는 바다표범 사냥꾼들의 사냥기지나 포경선들의 수리와 보급을 위한 임시 체류지 성격의 땅이었다. 19세기 들어 벌목과 포경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면서 유럽인의 정착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830년대 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탈주한 유형수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면서, 마오리족과 접촉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마오리 여성들과 결혼한 ‘파케하 마오리(Pākehā Māori)’라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이들은 유럽인과 마오리족의 교역을 증개하면서 뉴질랜드의 초기 역사를 장식한다.<sup>1)</sup>

이밖에도 1814년 이후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 목적의 마을이 건설되고, 포경업의 발전으로 형성된 지역에 상점과 술집, 매춘업 등으로 소규모 정착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830년대까지 뉴질랜드는 유럽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지였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웨이크필드(Edward Gibbon Wakefield)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0949).

1)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 1차 대전 이전까지의 인구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 『Homo Migrants』, vol. 22(2020), 105-107쪽.

기존의 유형 식민지 개척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식민화 이론을 주장했으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로운 식민대상지로 뉴질랜드를 선택했다. 그와 그의 동생에 의해 1839년 설립된 뉴질랜드회사는 불법적인 토지매매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기 뉴질랜드 식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2)</sup> 1840년 공식적으로 영국과 40여 명의 마오리 족장 사이에 체결된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으로 1841년 5월 왕령식민지가 되었지만, 뉴질랜드의 식민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1858년 말 뉴질랜드 전체인구는 115,461명(마오리 인구 56,049명 포함)에 불과했다.<sup>3)</sup> 1843년 와이라우 충돌사건(Wairau affray), 1845년부터 1846년 사이에 벌어진 북부 전쟁(northern war)과 1846년에서 1848년 사이 벌어진 왕가누이 전쟁(Whanganui war)과 같은 이유로 유럽계 이민자의 증가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sup>4)</sup> 유럽 정착민에 대한 마오리족의 조직적인 저항이 뉴질랜드 식민화 정책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오리인들과의 전쟁이 종식되고, 안정을 찾은 1860년 말 뉴질랜드 인구는 총 139,19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유럽계 인구는 83,919명(남: 48,941명, 여: 34,978명), 마오리 인구는 55,275명(남: 31,298명, 여: 23,989명)으로, 1858년 48.5%에 달하던 마오리 인구의 비중이 39.7%로 감소한다.<sup>5)</sup> 그나마 이런 인구증가가 가능했던 것도 1857년 남섬 북단의 벨슨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2천여 명의 금광꾼이 몰려든 것에 기인했다. 184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불어닥쳤던 골드러시의 열풍이 1851년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에서 금맥이 발견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옮겨왔다. 1860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러시 이민이 대략 60만 명으

2) 이태숙, 「19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 웨이크필드파의 식민지 건설사업과 그에 대한 영국정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서양사론』, vol 29(1988), 205-242쪽; 이태숙,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 사업」, 『서양사론』, vol 38(1992), 87-115쪽; 이태숙, 「E. G. 웨이크필드와 식민체계화 운동 1829-1850 - 웨이크필드파 식민운동의 사상적 기반」, 『서양사론』, vol 27(1986), 73-108쪽;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08-110쪽.

3) "Historical population estimates tables" [http://archive.stats.govt.nz/browse\\_for\\_stats/population/estimates\\_and\\_projections/historical-population-tables.aspx](http://archive.stats.govt.nz/browse_for_stats/population/estimates_and_projections/historical-population-tables.aspx) (검색일: 2022. 1. 10).

4)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12-113쪽.

5) "No. 1. Table showing the estimated european population of New Zealand, in December 1860", *Statistics of New Zealand for 1860*.

로 추산되는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일조했다.<sup>6)</sup> 1861년 오테고(Otago) 중부지역에서, 1865년에는 웨스트랜드(Westland)에서 새로운 금맥이 발견되면서, 뉴질랜드에도 본격적인 골드러시가 불어닥쳤다. 1863년 뉴질랜드로 들어온 이민자는 45,730명으로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853년부터 1870년 사이 뉴질랜드 인구는 3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8.3배 증가했다.<sup>7)</sup> 이런 인구증가에도 뉴질랜드는 여전히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해 수적으로나 인구증가 속도에서 훨씬 뒤져있었다.<sup>8)</sup>

1871년 256,398명(마오리 인구 제외)이었던 뉴질랜드의 인구는 1차 대전이 발발하기 몇 해 전인 1911년에 가서는 100만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 도달했다.<sup>9)</sup> 뉴질랜드의 인구 규모가 여전히 주목할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약 4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상대적으로 급속한 인구증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뉴질랜드와 영 제국 사이에 진행된 지원이민(assisted Immigration) 정책의 결과였다. 1870년 뉴질랜드 경제는 양모 가격의 하락과 금 생산량의 저하로 침체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마오리 전쟁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악화되고 있었다.<sup>10)</sup>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새로운 이민자를 불러모을 자극제가 필요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뉴질랜드 이민자의 대부분을 공급하던 영 제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이민자(Immigrants)는 어디에선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해외 이주자(Emigrants)여야 했다.

6)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01-102쪽.

7) <https://nzhistory.govt.nz/culture/immigration/home-away-from-home/summary> (검색일: 2022. 1. 11); Jock Phillips, Terry Hearn, *Settlers: New Zealand Immigrants from England, Ireland and Scotland 1800-1945* (Auckland: Auckland University Press, 2008), p. 48.

8) 약 26만 km<sup>2</sup>의 뉴질랜드 크기(현재 남한의 크기는 10만 km<sup>2</sup>를 약간 상회)를 고려해 계산하면, 당시 인구 밀도는 km<sup>2</sup>당 채 1명이 안 되는 수준이다. 물론 거대한 영토 크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낮은 인구 밀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9) “표 5) 1858년-1911년 사이 뉴질랜드 인구 증감변화(마오리 인구 제외)”,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30쪽.

10) 권형진, 같은 논문, 118쪽.

## II. 지원이민 정책과 인구변화

### 1. 첫 번째 지원이민제도 도입과 그 결과(1871-1891)

1870년대는 뉴질랜드 역사, 특히 이민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 시작은 오테고에서 시작된 골드러시 소식을 쫓아 1861년 남섬의 더니든(Dunedin)으로 이주한 런던 출신의 유대계 저널리스트 보겔(Julius Vogel)의 역할이 컸다. 황금을 찾아 1856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한 보겔은 사업에 실패하고, 신문과 편집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한 보겔은 1868년까지 오테고 지역에서 신문편집인으로서 성공하면서, 1863년부터 1869년까지 오테고의 지방의회에서 재정과 개발 분야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았다. 남섬의 정치적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뉴질랜드 정계에서 영향력을 키운 보겔은 1868년 스태포드(Edward Stafford) 정부와 대립하고 있던 폭스(William Fox)와 연합해 1869년 선거에서 승리했다. 새로운 폭스 정부에서 식민지 재무장관(Colonial Treasurer)을 맡은,<sup>11)</sup> 보겔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과 함께 철도와 도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을 주장했다. 철도건설 자금은 해외차관과 투자로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 이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이민자 정착과 도로 및 철도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통해 마오리 전쟁으로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북섬의 변경 지역에 정착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2)</sup> 구매와 몰수의 방법으로 마오리족으로부터 획득한 토지를 이민자들에게 제공해 사회질서를 수립하면, 뉴질랜드에 ‘영 제국의 문명(British civilisation)’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보겔이 구상한 정책의 최종목표였다.<sup>13)</sup>

뉴질랜드의 지원 이민자 제도(the assisted immigration scheme)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보겔의 구상은 1832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먼저 도입한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이 제도로 1850년까지 12만7천 명의

---

11) Raewyn Dalziel, “Vogel, Julius”,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2013,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1v4/vogel-julius> (검색일: 2022. 1. 11).

12) Jock Phillips, Terry Hearn, *Settlers*, p. 55.

13)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8. The great migration: 1871 to 1885”,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Te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history-of-immigration/> (검색일: 2022. 1. 11).

지원 이민자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했고, 1850년대에만 23만 명이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왔다.<sup>14)</sup> 이런 전례를 바탕으로 보겔의 주도하에 “1870년 이민과 공공사업법”<sup>15)</sup>과 “1870년 이민과 공공사업 채권법”<sup>16)</sup>이 제정되었다. 이민과 공공사업법에 따라, 뉴질랜드 총독(Governor)은 북섬의 도로 건설과 보수, 페리 노선 개설과 미들아일랜드<sup>17)</sup>의 철도 부설과 재정확보, 토지 수용, 그리고 금광지역에 대한 물 공급, 노동력 충당을 위한 이민자 모집과 정착지 건설 등에 대한 전권과 재정 사용 등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민과 공공사업 채권법으로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재정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단기 채권을 발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총 400만 파운드 스텔링(£)의 예산은 세부적으로 철도 부설에 200만£, 이민자 모집과 정착지 건설에 100만£, 도로 건설에 40만£, 금광지역의 물 공급 시설에 30만£, 북섬의 토지 구입을 위해 20만£, 전신과 기타 비용에 6만£와 예비비 목적의 4만£가 각각 책정되었다.<sup>18)</sup>

이민과 관련 재정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제5절(Part V) 40조의 규정에 따라 총독은 영국(Great Britain)과 아일랜드에서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총괄할 대표(Agent-General)를 임명하고, 그의 책임으로 이민자 모집과 업무를 담당할 담당관들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19)</sup> 1871년 3월, 런던에 설치된 뉴질랜드 이민대표부의 첫 번째 책임자로 피더스톤(Isaac Featherston)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보겔의 구상과 달리 초기 영국에서 이민자 모집 활동은 피더스톤의 불성실함과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부정적

- 
- 14) “Assisted migration”, <https://www.nma.gov.au/defining-moments/resources/assisted-migration> (검색일: 2022. 1. 11).
- 15) 공식 명칭은 “An Act to provide for Immig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other Public Works and also to promote Settlement”로 1870년 9월 12일 제정되었다.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Act 1870 (33 and 34 Victoriae 1870 No 77)”, pp. 1-19,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a187033a34v1870n77428/](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a187033a34v1870n77428/) (검색일: 2022. 1. 11).
- 16) 공식 명칭은 “An Act to authorize the raising of Money for Immigration and Public Works”로 1870년 9월 13일 제정되었다.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Loan Act 1870 (33 and 34 Victoriae 1870 No 80)”, pp. 345-348,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a187033a34v1870n80466/](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a187033a34v1870n80466/) (검색일: 2022. 1. 11).
- 17) 현재 남섬(South Island)의 19세기 명칭은 Middle Island였다.
- 18)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Loan Act 1870 (33 and 34 Victoriae 1870 No 80)”, pp. 8-10.
- 19)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Act 1870”, p. 9.

인 사회적 인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sup>20)</sup> 뉴질랜드 기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영국 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과 위험한 ‘원주민(natives)’, 뉴질랜드로 가는 높은 비용과 오랜 항해 기간에 따른 위험 부담이 이민자 모집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1871년 지원 이민자 모집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런던의 토목회사 ‘존 브러던 앤 선스(John Brogden & Sons)’가 2,712명의 철도 부설 노동자를 모집한 것이 나름의 성과였다. 영국에서 실패한 피더스톤은 새로운 이민자 모집을 위해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1872년까지 적지 않은 이민노동자를 모집하는 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876년 피더스톤이 건강악화로 사망했지만, 그가 시작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의 이민자 모집은 10년간 꾸준히 성과를 거둬 각각 5천 명이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비용(주로 승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뉴질랜드로 들어온 지원 이민자의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국 출신이었다. 피더스톤의 영국에서 지원 이민자 모집에 실패하면서, 1873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5£에 달하는 성인 배삯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이민자 지원책을 실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함께 먼저 이주한 뉴질랜드 정착민들이 영국의 친지들에게 이민을 권유하는 것이 이런 성과를 거두는 원인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1873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53명, 스코틀랜드에 78명, 아일랜드에 46명의 모집홍보관을 파견해 서점과 소매상점, 학교 교사들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이민자 모집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과 함께 ‘건전하고(sober)’, 성실한 그리고 도덕적이며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기혼 농업노동자와 미혼의 여성 가사도우미를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홍보 포스터를 영국 전역에 내걸었다. 그 결과 농업 분야에서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sup>21)</sup>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유입 정책만으로는 가시적인 이민자 증가 효과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민문제는 유입국과 유출국 모두에서 이민을 위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했는데, 1870년대 뉴질랜드

20) David Hamer, “Featherston, Isaac Earl”,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1990,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1f4/featherston-isaac-earl> (검색일: 2022. 1. 12).

21) Wilfred David Borrie, *Immigration to New Zealand, 1854-1938* (Canberra: Demography Program, Research School of Social Scienc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1), p. 52.

의 지원 이민자 정책의 성패는 사실상 당시의 영국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영국에서는 값싼 외국산 밀 수입과 저임금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농업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위기에 빠져 있었다. 1860년대 10년간 농업 분야 고용이 16%나 감소했고, 1870년대 초반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이었다. 농촌 지역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가내공업, 장갑 또는 레이스 제조업과 같은 직종은 공장제 생산에 밀려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밀렵과 같은 범법행위로 내몰리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19세기 초부터 제정된 공장법들이 문제였다. 제도적으로 아동 노동이 금지되고 여성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지만, 농업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고통이 확대되는 상황에 놓였다. 1872년 5월 29일 전국농업노동자조합(National Agricultural Labourers' Union; 이하 NALU)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치(Joseph Arch)의 표현에서 당시 농업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잘 나타난다. 영국의 농업노동자는 “씨레 아래 있는 두꺼비보다 못한”<sup>22)</sup> 존재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부 지역에서 1830년 기계화된 탈곡기 사용에 남부와 동부의 소작농들이 일으켰던 스윙반란(Swing riot)과 같은 농업노동자 봉기가 다시 발생할 조짐이 확산되고 있었다. 농업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도 이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설립 후 2년 만에 조합원 수를 86,000명 이상 늘리고, 농업노동자의 10%가 가입한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NALU는 농업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했지만, 대부분 농업노동자는 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영국 내 농업 분야에서의 실업인구 증가와 고용기회 축소는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했다. 뉴질랜드 대표부는 농업노동자의 이민을 늘리기 위해 NALU 지도부와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는 조직화된 NALU를 통해 보다 손쉽게 농업이민자를 집단적으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1873년 12월 23일 노조 지도부의 홀러웨이(Christopher Holloway)의 인솔로 500명의 NALU 조합원과 가족들이 영국의 프리모스 항에서 ‘몽골(Mongol)’호를 타고 뉴질랜드로 떠났다. 이민자는 무료 승선권이 제공되었고, 홀러웨이는 보수와 함께 왕복 승선료와 두 달간의 체류경비를 받았다. 뉴질랜드 정부의 환대에 홀러웨이는 애초 계획과 달리 1875년 4월까지 뉴질랜드에 머물렀고, 조합본부

22) *Labourers' Union Chronicle*, 1873. 11. 29, p. 1.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8. The great migration: 1871 to 1885” 재인용)

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1874년 20세기가 될 때까지 뉴질랜드 이민사에서 최고 기록인 32,118명의 지원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이주했고, 다음 해는 20,000명이 넘게 새로 뉴질랜드로 이주했다.<sup>23)</sup>

1870년대와 1880년대 뉴질랜드로 들어온 지원 이민자들은 대부분 잉글랜드(웨일스 포함),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생으로, 잉글랜드 출신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대부분 농업노동자와 농촌 출신의 목수, 페인트공, 대장장이 또는 제화공 같은 기술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주로 남부 미들랜즈 또는 콘월과 데븐 출신으로 가족을 동반한 이민자였다. 남부 미들랜즈와 콘월, 데븐은 1840년대에도 뉴질랜드 이민자들이 집중된 지역이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뉴질랜드 이민모집 대리인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한 지역이었다. 당시 뉴질랜드로 들어온 지원 이민자 중 감리교 신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sup>24)</sup>

잉글랜드 출신을 제외한 이민자의 20% 이상이 남동부 저지 출신의 스코틀랜드인과 약 1,200명의 셰틀랜드 제도 출신이었다. 나머진 20%를 차지하는 아일랜드 출신 지원 이민자 중 상당수가 먼저 이주한 친척들을 따라 들어온 남서부 출신의 가톨릭교도들이었다. 특히,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 중 여성과 미혼자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얼스터 출신의 많은 미혼 여성들이 뉴질랜드 이민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지원 이민자로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출신이 많이 증가하는데,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경기침체가 대량 이민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뉴질랜드 대표부 이민담당관이었던 버클리 목사(Reverend Peter Barclay)는 임금 하락과 고용 저하, 국내 방적 산업의 침체로 남동부 로우랜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아일랜드 농촌 지역에서는 빈곤으로 소작농 출신의 젊은 세대들이 고향을 떠나 잉글랜드 또는 스코틀랜드로 이주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더 먼 곳으로의 이민을 선택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아일랜드 남부의 먼스터(Munster)에서 많은 사람이 골드러시를 쫓아 뉴질랜드 이민을 결심했고,

---

23) 홀러웨이는 영국으로 돌아와 뉴질랜드 정부의 특별 이민담당관으로 활동했다. 1876년 한 해 동안의 보수는 312파운드 6실링이었다. 그는 1880년까지 계속된 뉴질랜드 이민자 모집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Pamela L. R. Horn, "Christopher Holloway: an Oxfordshire Trade Union Leader", in *Oxoniensia*, Vol. 33(1968), pp. 125-137, 특히 pp. 130-133.

24)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8. The great migration: 1871 to 1885".



얼스터에서는 이민 모집대리인들이 가사노동을 할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했다.<sup>25)</sup>

대규모 이민 시기 초반,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주자들은 대부분 정착지원을 받은 개별 가족 단위의 이주자들이었다. 남부 잉글랜드 출신의 1,000여 가족들이 북섬의 맨체스터 지역에 정착했다.<sup>26)</sup> 1874년 스튜어트(George Vesey Stewart)가 이민과 왕령지 담당장관(Minister of Immigration and Crown Lands) 오로크(George Maurice O'Rorke)와 협상을 통해 획득한 북섬 플렌티 만의 카티카티(Katikati)에 이민자를 위한 특별정착지를 마련하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정착지도 만들어졌다. 스튜어트는 1875년~1878년, 1880년~1883년의 두 차례에 걸친 이민자 정착 사업으로 약 4천 명의 지원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하였다. 이곳에 정착한 이민자들 대부분은 아일랜드 얼스터 지방 출신의 개신교도들이었는데, 모든 정착지 개척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1875년과 1878년 사이 독일, 폴란드와 이탈리아 출신 노동자들을 동원해 남섬의 잭슨 만(Jackson Bay) 지역에서 개척하던 정착지 건설은 열악한 환경과 악천후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sup>27)</sup>

187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지원 이민자 행렬은 1875년 겨울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인구가 증가하자, 뉴질랜드 정부가 지원 이민자를 위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1876년 9,677명으로 감소한 지원 이민자 수는 다음 해에는 5,344명까지 감소했다. 1878년 잠시 경기가 회복되어 지원 이민자가 6,618명으로 증가하고, 1879년 한 해 동안 10,311명이 지원 이민자로 뉴질랜드로 들어왔지만, 이런 증가세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이미 1879년 7월, 영국에 설치된 159개 이민자 모집 사무소 중 117개가 활동을 중지했고, 1880년부터는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자 지원정책 예산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뉴질랜드 이민정착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이민 희망자는 5파운드의 이주비용을 선납해야 했다. 결국, 지원정책의 변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지원 이민자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야만 했고, 1890년 뉴질랜드

25) *Ibid.*

26) 이 지역은 페일딩(William H. A. Feilding) 대령이 설립한 이민과 정착민 지원회사(Emigrant and Colonist's Aid Corporation)가 뉴질랜드의 웰링턴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75,000파운드를 지불하고 획득한 400km<sup>2</sup> 크기의 토지에 포함된 정착지였다. 현재는 페일딩 대령의 이름 딴 페일딩 시다.

27) 이 지역은 400여 명의 영국 농업노동자들을 정착시킬 계획이었으나, 환경이 열악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들을 통해 개간사업을 벌였다. *Ibid.*

드 정부가 이민자 지원정책을 중지하면서 종말을 고한다.<sup>28)</sup>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870년대는 뉴질랜드 이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71년, 마오리 인구를 제외한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26만6천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1871년부터 1880년까지 10년간 뉴질랜드의 인구가 217,878명 증가하는 동안 이민으로 증가한 누적이민자 수는 136,733명이었고, 정부의 이민자 지원정책으로 들어온 이민자는 총 100,920명이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 인구변화에서 유입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매년 집계된 이민자 인구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종 집계된 연간 이민자 총계에서 지원 이민자의 중요성이다.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이민자는 정착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따라서 1871년 이후 10년간 지원 이민자가 유입 이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이민으로 인한 인구증가에서 지원 이민자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원 이민자가 최대를 기록한 1874년 그 비중은 유입 이민자 전체의 73.05%를 차지하고, 10년간 누적한 이민자 합계에서 지원 이민자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8%를 차지한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 상황 악화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된 1881년 이후 지원 이민자 제도는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1883년과 1885년 사이 3년과 1887년 일시적으로 지원 이민자 수가 다소 증가했으나, 1870년대의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888년 이민자 수가 9,175명 감소한 사실에서 이후 뉴질랜드의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

28) *Ibid.*

표 9) 1871~1891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단위: 명)

연도	총인구 (마오리 제외)	이민자 총계	유입 이민자	유출 이민자	지원 이민자	유입 이민자 중 지원이민 자 비율(%)
1871	266,986	4,786			303	
1872	279,560	4,973			4,736	
1873	295,946	8,811			8,754	
1874	341,860	38,106	43,965	5,859	32,118	73.05
1875	375,856	25,270	31,737	6,467	20,370	64.18
1876	399,075	11,955	18,414	6,459	9,677	52.55
1877	408,618	6,376	12,987	6,611	5,344	41.15
1878	432,519	10,502	16,263	5,761	6,618	40.69
1879	463,729	18,723	23,957	5,234	10,311	43.04
1880	484,864	7,231	15,154	7,923	2,689	17.74
1881	500,910	1,616	9,688	8,072	103	1.06
1882	517,707	3,489	10,945	7,456	726	6.63
1883	540,877	10,029	19,215	9,186	5,902	30.72
1884	564,304	9,321	20,021	10,700	3,888	19.42
1885	575,226	4,504	16,199	11,695	1,072	6.62
1886	589,386	1,064	16,101	15,037	917	5.70
1887	603,361	977	13,089	12,112	1,286	9.83
1888	607,380	-9,175	13,606	22,781	485	3.56
1889	616,052	214	15,392	15,178	91	0.59
1890	625,508	-1,782	15,028	16,810	144	0.96
1891	634,058	-3,198	14,431	17,629	44	0.30
기간 누적 합계		153,792	326,192	190,970	115,578	35.43(75.15)*

\* ()안은 기간 내 이민자 총계에서 지원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  
출전: "Chapter 8. Statistical Summary of the Colony of New Zealand for  
the years 1853 to 1893(Inclusive)" 1893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1896년 뉴  
질랜드 공식 연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민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1890년 12월 16일 종  
료되었다.<sup>29)</sup> 이런 결정에 따라 1891년 마지막으로 44명의 지원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이주했지만, 그해에 뉴질랜드를 떠난 유출 이민자 수는  
17,629명으로 전체 유입 이민자 수 14,431명을 초과했다. 그 결과 뉴질

29) 1896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896/NZOYB\\_1896.html?\\_ga=2.59068461.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0478](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896/NZOYB_1896.html?_ga=2.59068461.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0478) (검색일: 2022. 1. 14).

랜드 인구는 이민으로 인해 3,198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유출 이민의 증가는 자체적인 경기침체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 특히 멜버른의 경이로운 성장에 그 원인이 있었다. 영 제국 내에서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로 발전한 멜버른은 1880년 28만 명이었던 인구가 1889년 44만5천 명으로 급증했다.<sup>30)</sup>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뉴질랜드 경제는 장기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이런 상황은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야 호전되기 시작했다. 1871년부터 1891년 사이 진행된 지원 이민자 제도의 시행은 뉴질랜드 이민사에서 첫 번째 대규모(?) 이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과 내용은 근본적으로 영제국민을 식민지로 이식하는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치령인 뉴질랜드도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었다.

표2)에서 보듯이, 지원 이민자의 유입이 중지된 1892년부터 1903년까지 뉴질랜드 인구는 182,072명 증가했다. 이는 1871년부터 1880년까지 10년간 217,878명 증가한 것보다는 적지만, 1881년부터 1891년 사이 11년 동안 133,148명 증가한 것보다는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이런 추세는 이 기간에 유입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출 이민자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01년부터 이민자 수는 6,522명에서 7,992명(1902), 11,275명(1903)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20세기에도 여전히 인구 1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구 소국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는 중지되었던 지원이민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뉴질랜드 정부는 1903년 지원 이민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그 결과 1904년 1,058명의 지원 이민자가 12년 만에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

30)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각주 95) 참조.

표 10) 1892~1903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단위: 명)

연도	총인구 (마오리 제외)	이민자 총계	유입 이민자	유출 이민자
1892	650,433	4,958	18,122	13,164
1893	672,265	10,412	26,135	15,723
1894	686,128	2,253	25,237	22,984
1895	698,706	895	21,862	20,967
1896	714,162	1,472	17,236	15,764
1897	729,056	2,752	18,592	15,840
1898	743,463	2,696	18,855	16,159
1899	756,505	1,887	18,506	16,619
1900	768,278	1,831	18,074	16,243
1901	787,657	6,522	25,086	18,564
1902	807,929	7,992	30,293	22,301
1903	832,505	11,275	30,883	19,608
기간 누적 합계		54,945	268,881	213,936

출전: 1896년, 1900년, 191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 2. 양차 대전과 두 번째 지원이민제도 시행(1903-1946)

1890년 말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 지원정책이 중지된 이후에도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책임진 런던 주재 대표(Agent-General)는 이민자 수송을 담당할 여객선사와 운임 할인 협상을 통해 이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sup>31)</sup> 그러나 1903년 뉴질랜드 의회가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정착민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원 이민정책이 부활의 조짐을 보였다.<sup>32)</sup> 이전의 지원 이민제도와와의 차이점은 이주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1903년 이전까지 런던 주재 대표가 여객선사와 단순히 이민자의 운임 할인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갈수록 어렵게

31) 1903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03/NZOYB\\_1903.html?\\_ga=2.59243437.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3570](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03/NZOYB_1903.html?_ga=2.59243437.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3570) (검색일: 2022. 1. 14).

32) 1904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04/NZOYB\\_1904.html?\\_ga=2.127357709.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0272](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04/NZOYB_1904.html?_ga=2.127357709.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0272) (검색일: 2022. 1. 14).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익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민자를 승선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뉴질랜드 의회는 1903년을 시작으로 1904년 2,850£를 이민비용 일부 지원 명목으로 책정하고, 최초로 150£를 이산가족 결합 지원 예산으로 통과시켰다.<sup>33)</sup> 이 두 개 항목의 예산은 매년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되었는데, 이후 매년 예산이 증액되어 1906년 이민비용 일부 지원 목적으로 9,000£와 이산가족 결합 지원 목적으로 1,000£가 책정되었다.<sup>34)</sup>

지원 이민자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은 런던 주재 뉴질랜드 대표<sup>35)</sup>가 이민자의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문제는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 대부분이 매우 가난하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런 기준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었다. 1910년을 예로 들면, 재산이 25£ 미만인 '성실한' 기혼 농부, 농업노동자와 10£ 미만인 미혼의 농업노동자에게 승선료의 일부를 지원했다. 당시 2등 선실의 정상적인 승선료는 38£, 2인실 3등 선실은 21£, 4인실 3등 선실은 19£였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민자는 각각 27£, 12£와 10£만을 지불하면 되었다. 6인실을 이용하는 농업노동자는 8£로 배에 오를 수 있었다. 미혼의 여성 가사노동 이민자의 경우에는 더 적은 승선료를 지불했는데, 6인실의 경우 2.16£, 4인실은 4.16£, 2인실은 6.16£로 승선이 가능했다.<sup>36)</sup> 이러한 지원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당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변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민 지원정책의 대상은 영국인으로 한정되었고, 이민 신청자격으로 농민과 농업노동자는 50세 미만, 가사노동자는 40세 미만으로 나이가 제한되었고, 21세 미만의 이민자는 필요한 경우, 항해 기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

33) 이외에 150£의 예산이 이산 이민자의 가족 결합 목적으로 통과되었다.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05/NZOYB\\_1905.html?\\_ga=2.58530090.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2124](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05/NZOYB_1905.html?_ga=2.58530090.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2124) (검색일: 2022. 1. 14).

34) 1906년~1909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stats.govt.nz/indicators-and-snapshots/digitised-collections/yearbook-collection-18932012#Yearbook-1900-09> (검색일: 2022. 1. 14).

35) 런던 주재 뉴질랜드 대표의 공식 명칭은 1905년 Agent-General에서 High Commissioner로 바뀌었다.

36) 부모가 동반한 3살~12세 사이의 청소년은 50% 인하된 승선료를 냈다. 1911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11/NZOYB\\_1911.html?\\_ga=2.125826826.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78931](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11/NZOYB_1911.html?_ga=2.125826826.1094065402.1644311363-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78931) (검색일: 2022. 1. 14).

이들의 이주비용을 뉴질랜드 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민자들은 일정 기간 정해진 직업에 종사해야만 했다.<sup>37)</sup>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뉴질랜드의 지원이민제도는 1904년을 시작으로 1941년까지 계속되었다. 뉴질랜드 이주사에서 두 번째 대규모 이민을 가능하게 만든 이 기간의 지원 이민자 유입은 양차 대전과 대공황의 영향을 받았다. 1차 대전 기간 지원 이민자 숫자는 최대 695명을 넘지 못했으며, 대공황의 충격과 밀려온 1931년 489명이었던 지원 이민자의 숫자가 다음 해는 77명으로 감소하고 1941년 3명이 될 때까지 최대 13명을 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고, 결국에는 2차 대전 기간 더 이상의 지원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지출한 재정 금액도 매년 변화하는데,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06년부터 1932년까지 총 1,249,287£가 지원 이민정책을 위해 사용되었다.<sup>38)</sup>

37) 192-2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영국 거주자가 이민신청을 하면 이주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웰링턴의 이민청(Immigration Department) 또는 런던 주재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에게 출발 전 이주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다. 가사노동자와 농장 노동자로 이민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민자는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후 1년 동안 해당 직업에 종사해야 했으며, 1년이 지나기 전에 직업을 바꾸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부모와 동행하는 3세에서 12세 사이의 청소년은 승선료 절반을, 이주 가족 당 한 명의 3세 미만 어린이의 승선료는 무료였다. 이 밖의 어린이는 승선료의 4분의 1을 내야 했다. 지원 이민자들은 쇼(Shaw), 세빌(Savill), 알비온(Albion)사와 뉴질랜드 해운사(the New Zealand Shipping Company), 연방증기선사(the Federal Steam Navigation Company)의 선박을 이용해야 했다. 192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20/NZOYB\\_1920.html?\\_ga=2.187468904.158471868.1613367808-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495](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20/NZOYB_1920.html?_ga=2.187468904.158471868.1613367808-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495); 1921-2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21-22/NZOYB\\_1921-22.html?\\_ga=2.207771985.297346231.1644471497-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9157](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21-22/NZOYB_1921-22.html?_ga=2.207771985.297346231.1644471497-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9157) (검색일: 2022. 1. 17).

38) 1932년 이후에 뉴질랜드 정부 예산 지출 자료에서 이민자 지원을 위한 지출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1933년부터 1941년까지 뉴질랜드로 입국한 지원 이민자도 총 64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원액도 매년 차이가 나는데, 1906년부터 1932년(3월 31일 기준)까지 각각 8,753, 14,352, 9,131, 15,077, 17,002, 9,441, 11,681, 14,694, 33,914, 33,220, 10,010, 6,533, 3,856, 600, 3,128, 390, 247,510, 90,612, 136,353, 107,521, 184,918, 67,157, 50,266, 41,756, 33,545, 5,266£가 지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지원액은 대략 46,270£이다. 1915~1934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stats.govt.nz/indicators-and-snapshots/digitised-collecti>

뉴질랜드 정부가 1870년 이후 1932년 3월 31일까지 지원 이민자 모집을 위해 지출한 재정 규모는 총 3,314,905£로, 같은 기간 공공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총 120,940,314£에서 2.74%를 차지하는 것이었다.<sup>39)</sup> 공식 연감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표3)에서 보듯이, 1904년부터 1941년까지의 지원 이민자 누적 합계는 110,705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누적 유입 이민자는 1,247,140명, 유출 이민자는 1,064,911명으로 누적 순이민 증가는 182,229명이었다. 지원 이민자가 정착을 목적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간 순이민 증가에서 지원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5%에 달한다. 이런 사실은 지원 이민자 제도가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지원 이민제도는 기본적으로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미 1881년 ‘중국 이민자법(Chinese Immigrants Act)’을 제정하고 중국인의 뉴질랜드 이민을 제도적으로 제한했던 역사는<sup>40)</sup> 이 시기에도 그대로 유지·강화되었다. ‘1908년 이민 제한 수정법(Immigration Restriction Amendment Act 1908)’<sup>41)</sup>을 통해 뉴질랜드 거주 중국인이 재입국을 목적으로 출국 시에는 지문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중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sup>42)</sup> 1차 대전기에는 ‘1916년 전쟁 규정(War Regulations of 1916)’을 통해 뉴질랜드 입국 규제가 강화되었고, 1919년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자 배제법(Undesirable Immigrants Exclusion Act 1919)’을

---

[ons/yearbook-collection-18932012#Yearbook-1900-09](https://www.stats.govt.nz/yearbook-collection-18932012#Yearbook-1900-09) (검색일: 2022. 1. 17).

39) 1933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33/NZOYB\\_1933.html?\\_ga=2.238247363.297346231.1644471497-1552793408.1609743625#idsect2\\_1\\_155641](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33/NZOYB_1933.html?_ga=2.238247363.297346231.1644471497-1552793408.1609743625#idsect2_1_155641) (검색일: 2022. 1. 17).

40)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24-125쪽.

41) “Immigration Restriction 1908”, No. 78, [http://www.austlii.edu.au/nz/legis/hist\\_act\\_1908/ira1908277.pdf](http://www.austlii.edu.au/nz/legis/hist_act_1908/ira1908277.pdf) (검색일: 2022. 1. 17).

42) 중국인의 뉴질랜드 입국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는 ‘1907년 중국인 이민 수정법(Chinese Immigrants Amendment Act 1907)’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 법에 따라 중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세관원 앞에서 100단어의 영어 테스트를 치러야 했고, 1인당 100£의 세금을 내야 했다. “1881-1914: restrictions on Chinese and others”, Ann Beaglehole, ‘Immigration regulation’,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govt.nz/en/immigration-regulation/page-2> (검색일: 2022. 1. 17).



제정해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 출신자들의 뉴질랜드 입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뉴질랜드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할 위험인물의 뉴질랜드 입국과 정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민자 규제법들은 독일인들, 사회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시아계 이민을 더욱 제한했는데, 매시(William Massey) 총리는 ‘1920년 이민 제한 수정법(Immigration Restriction Amendment Act of 1920)’ 제정을 “이 나라는 ‘백인’ 뉴질랜드(‘white’ New Zealand)가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에게 깊게 뿌리내린 감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민 정착의 ‘부적합성(unsuitability)’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영국 출생과 혈통이 아닌 사람이 이민을 희망할 경우, 서면으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어 능력과 교육 수준에 대해 심사하도록 만든 것이다.<sup>43)</sup>

1930년대에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자 지원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미 지원 이민신청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지원 이민자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동시에 1922년 ‘제국 정착법(Empire Settlement Act)’<sup>44)</sup>의 규정으로 새로이 독립한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과 채널제도(건지섬 제외)의 주민은 뉴질랜드 지원 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다.<sup>45)</sup> 그리고 지원 이민자를 영국 출신(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으

43)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아시아계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비영어권 유럽인들의 뉴질랜드 이민도 제한되었다. 특히, 남부 유럽의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인들의 이민을 어렵게 만들었다. “Immigration regulation - 1914-1945: restrictions on non-British immigration”, <https://teara.govt.nz/en/immigration-regulation/page-3?source=inline> (검색일: 2022. 1. 17).

44) 정식 명칭은 “A Bill to Make better provision for furthering British settlement in His Majesty’s Oversea Dominions”, <https://biblio.uottawa.ca/omeka2/jmccutcheon/items/show/17> (검색일: 2022. 1. 17).

45) 1928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Assisted Migration”,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28/NZOYB\\_1928.html?\\_ga=2.60958636.1401808364.1627372541-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2121](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28/NZOYB_1928.html?_ga=2.60958636.1401808364.1627372541-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2121) (검색일: 2022. 1. 17); 1922년의 제국 정착법이 제정된 또 다른 목적은 참전 군인과 그 가족의 이민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법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이주와 정착 지원을 받고 뉴질랜드로 가족 이민한 사람이 44,000명 이상이였다. Jock Phillips, Terry Hearn, *Settlers*, p. 64.

로 제한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뉴질랜드 정부는 1927년 초부터 대부분의 지원을 중단해야만 했다.<sup>46)</sup>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 시기에 지원 이민자의 규모는 전체 이민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나, 192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대공황의 영향이 커진 1931년부터는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194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은 1871년부터 2차 대전기까지 진행된 지원 이민자 제도의 결과에 대해, “226,274명이 영국 출신이며, 다른 유럽 국가 출신이 3,909명”<sup>47)</sup>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자료들에서 수정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총 226,283명의 지원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들어왔다. 이런 통계상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추론을 할 수는 있다. 무엇보다도 1871년 피더스톤에 의해 추진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통계가 1942년 연감에서 언급된 다른 유럽국가 출신 이민자 3,909명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다.<sup>48)</sup> 결국, 다른 유럽국가 출신 이민자 3,909명을 전체 지원 이민자 226,283명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지만, 이 숫자를 포함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sup>49)</sup> 통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지만, 전체 기간의 지원 이민자 중 영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한 98% 이상을

46) 194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External Migration”,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40/NZOYB\\_%201940.html?\\_ga=2.158543674.1401808364.1627372541-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7573](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40/NZOYB_%201940.html?_ga=2.158543674.1401808364.1627372541-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7573) (검색일: 2022. 1. 17).

47) 194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42/NZOYB\\_1942.html?\\_ga=2.105929411.1317738274.1628486996-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1916](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42/NZOYB_1942.html?_ga=2.105929411.1317738274.1628486996-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11916) (검색일: 2022. 1. 17).

48) 1871년부터 10년간 약 1만 명 정도의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들어왔다는 기록을 고려했을 때, 이들 중 상당수가 지원 이민자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49) 226,283명을 영국 출신으로 정하고, 여기에 다른 유럽 출신 3,909명을 합산하면 230,192명으로 전체 지원 이민자 숫자가 증가한다. 이 경우, 영국 출신의 비율은 98.3%이다. 반대로 226,283명을 전체 지원 이민자 숫자로 수정하고, 여기서 3,909명의 다른 유럽국가 출신을 제하면, 영국 출신 지원 이민자는 222,374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영국 출신 비율은 전체의 98.27%로 약간 낮아진다.

차지한다. 그리고 1941년까지 지원 이민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증가한 전체 누적 순이민자 수가 340,239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적 합계 226,283명의 지원 이민자 규모(누적 이민증가 합계의 66.5%)는 뉴질랜드 인구 구조 변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1904~1941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단위: 명)

연도	총인구 (마오리제외)	이민자 총계	유입 이민자	유출 이민자	지원 이민자	유입 이민자 중 지원이민자 비율(%)
1904	857,539	10,355	32,632	22,277	1,058	3.24
1905	882,462	9,302	32,685	23,383	2,191	6.70
1906	908,726	12,848	39,233	26,385	3,682	9.38
1907	929,484	5,730	36,108	30,378	2,959	8.19
1908	960,642	14,261	44,970	30,709	4,667	10.38
1909	982,926	4,719	38,650	33,931	3,299	8.54
1910	992,802	3,408	35,769	32,361	2,341	6.54
1911	1,014,896	4,200	41,389	37,189	3,070	7.42
1912	1,039,016	8,927	44,660	35,733	3,535	7.92
1913	1,068,644	14,219	44,588	30,369	5,151	11.55
1914	1,090,328	5,140	37,646	32,506	3,716	9.87
1915	1,099,394	3,075	25,551	22,476	1,300	5.09
1916	1,099,449	636	21,799	21,163	695	3.19
1917	1,099,117	1,780	15,649	13,869	231	1.48
1918	1,103,022	246	11,906	11,660	421	3.54
1919	1,142,889	1,054	20,931	19,877	3,569	17.05
1920	1,192,620	11,138	44,062	32,924	7,615	17.28
1921	1,223,901	13,323	41,882	28,559	8,085	19.30
1922	1,251,895	6,844	35,233	28,389	7,773	22.06
1923	1,274,551	6,820	36,488	29,668	6,181	16.94
1924	1,298,635	9,222	39,815	30,593	8,091	20.32
1925	1,329,759	12,674	41,846	29,172	8,277	19.78
1926	1,352,927	11,860	45,685	33,825	10,766	23.57
1927	1,373,298	2,428	38,676	36,248	5,899	15.25
1928	1,387,804	443	35,478	35,035	2,220	6.26
1929	1,403,617	711	34,799	34,088	1,878	5.40
1930	1,419,786	2,385	33,839	31,454	1,405	4.15
1931	1,440,506	5,109	30,741	25,632	489	1.59
1932	1,452,479	-3,172	17,891	21,063	77	0.43
1933	1,462,697	-2,595	18,713	21,308	9	0.05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

1934	1,472,442	-2,335	19,687	22,022	1	0.01
1935	1,481,014	-3,150	24,901	28,051	-	-
1936	1,491,560	-1,114	26,936	28,050	9	0.03
1937	1,502,737	-353	31,670	32,023	11	0.03
1938	1,517,712	2,386	38,738	36,352	10	0.03
1939	1,536,264	2,963	40,648	37,685	13	0.03
1940	1,549,921	6,028	31,432	25,404	8	0.03
1941	1,543,982	714	13,814	13,100	3	0.02
기간 누적 합계		182,229	1,247,140	1,064,911	110,705	8.88(60.75)*

\* ()안은 기간 내 이민자 총계에서 지원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  
출전: 1918년, 1920년, 1927년, 1939년, 1946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이상과 같이 두 번째 지원 이민제도는 그 시행 방법과 내용에서 첫 번째 지원 이민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뉴질랜드가 영연방 회원국이 된 시기(50)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두 번째 지원 이민제도의 성과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할 수 있으나, 영국계 이민자 중심의 이민정책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과 대공황으로 영 제국 또는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사국인 영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이를 인식했어야 했다.

### 3. 마지막 지원이민제도 시행과 결과(1947-1976)

대공황과 전쟁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원 이민이 1941년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1947년에 역사상 세 번째 지원 이민계획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전후 지원 이민정책을 통해 1975년까지 총 77,000명의 지원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이들은 대부분 영국 출신이었지만, 네덜란드와 다른 유럽국가 출신도 일부 포함 되어있었다.<sup>51)</sup>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지원 이민계획의 부활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945년 12월 뉴질랜드 정부는 국내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차치령 인구위원회(Dominion Population

50)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28쪽.

51) “Assisted immigration to New Zealand 1947-1975: Page 1. Introduction”,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New Zealand History*, <https://nzhistory.govt.nz/culture/assisted-immigration-to-nz-from-the-uk> (검색일: 2022. 1. 18).

Committee)’를 설치했는데, 위원회는 1946년 9월 보고서를 통해 자연적인 수단을 통한 인구정책을 우선 제안하면서, 이민을 통한 방법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극심한 주택 부족 문제가 이민 지원정책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52)</sup>

위원회의 부정적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를 따라 1947년 지원 이민계획을 부활시켰다.<sup>53)</sup> 1945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임 이민성 장관 콜웰(Arthur Calwell)은 매년 인구가 2% 증가해야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감소하는 출생률로는 목표의 절반밖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워, 매년 7만 명의 새로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후 지원 이민자 프로그램이다. 1946년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영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 및 지원 통행 협정(United Kingdom-Australia Free and Assisted Passage Agreements)’을 체결하고 1947년 3월 31일부터 지원 이민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영국인을 대상으로 이민자를 모집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의 영국적 특성(British character)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sup>54)</sup>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인 지원 이주계획과 함께 뉴질랜드도 1947년 7월부터 자체적인 영국인 지원 이주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sup>55)</sup> 같은 해, 국립고용청(National Employment Service)과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가 통합되고, 신임 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보켓(Herbert L.

---

52) “Assisted immigration to New Zealand 1947-1975: Page 2. Peopling New Zealand”, *Ibid.*

53) James Jupp, ed., *The Australian People. An Encyclopdia of the Nation, its People and their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39f.; A. James Hammerton, Alistair Thomson, *Ten pound Poms. Australia’s invisible migrants* (Manchester-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5), p. 29.

54) A. James Hammerton, Alistair Thomson, *Ten pound Poms. Australia’s invisible migrants*, pp. 29-30.

55)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이민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1946년 뉴질랜드 정부는 정신병원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에서 인력모집을 통해 총 240명의 여성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1957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7/NZOYB\\_1957.html?\\_ga=2.184480163.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17996](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7/NZOYB_1957.html?_ga=2.184480163.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17996) (검색일: 2022. 1. 18).

Bockett)이 이를 주도했다. 그는 마오리 인구를 포함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전후 노동정책 수립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이민계획도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원 이민의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했다. 보켓은 정부가 구성한 이민자문위원회(Immigration Advisory Council)의 의장으로서 이민자 수요, 제도의 연장 및 기타 정책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정부에 제안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sup>56)</sup> 1947년의 지원 이민제도는 우선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영국 거주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생산 및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주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았다.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으로 참전한 경우에는 이주비용을 면제해줬고, 다른 이주 신청자들은 10£의 이주비용(승선료)을 내야 했다. '10파운드 영국 이민자(Ten Pound Poms)'<sup>57)</sup>로 불린 이들 지원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도착 후 약속한 업체나 농장에서 2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뉴질랜드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sup>58)</sup>

1947년 시작된 지원 이민제도는 197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공식적으로 1975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sup>59)</sup> 지원 이민제도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

56) "Assisted immigration to New Zealand 1947-1975: Peopling New Zealand", *Ibid.*: John E. Martin, "Bockett, Herbert Leslie",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first published in 2000.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5b33/bockett-herbert-leslie> (검색일: 2022. 1. 18).

57)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10파운드의 이주지원금을 받고 온 영국 이민자들을 부르는 속어로 1950년 중반 다양한 매체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이민자를 모집하는 선전이 이뤄졌다. Lisa Matthew, "The £10 ticket to another life", *BBC News*, [http://news.bbc.co.uk/2/hi/uk\\_news/magazine/7217889.stm](http://news.bbc.co.uk/2/hi/uk_news/magazine/7217889.stm); 자료 영상 "Ten Pound Poms", <https://www.youtube.com/watch?v=4GhVNPgGfjY>; "Elizabeth - The Originals II: The 10 Pound Poms", <https://www.youtube.com/watch?v=kKqb6JR4ABs> (검색일: 2022. 1. 20) 참조.

58) 뉴질랜드 공식 연감 1951-52,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1-52/NZOYB\\_1951-52.html?\\_ga=2.260206925.1131458377.1627625928-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18201](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1-52/NZOYB_1951-52.html?_ga=2.260206925.1131458377.1627625928-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18201) (검색일: 2022. 1. 20).

59) 1976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76/NZOYB\\_1976.html?\\_ga=2.108984455.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58](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76/NZOYB_1976.html?_ga=2.108984455.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58) (검색일: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과 규모가 시기별로 다르게 시행되었으며, 유사한 이민정책도 병행해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949년과 1950년에는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이 이주했으며, 1949년 6월 영국의 빈곤층 아동들을 뉴질랜드로 입양시키는 계획을 통해 1950년 3월 31일 까지 5세에서 17세까지의 총 169명(남: 114명, 여: 55명)의 청소년들이 뉴질랜드의 위탁가정으로 입양되었고, 이 제도는 1954년까지 시행되었다.<sup>60)</sup> 이민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1950년 5월 발표된 지원 이민제도의 변화였다. 이에 따라 나이 제한이 35세에서 45세로 높아졌으며, 기존의 개인 분담금 10파운드가 없어지고, 선발된 영국의 지원 이민자는 무료로 이민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원 이민 대상이 영국인에서 20세~35세의 영국 이외 국가 출신의 독신 남성과 여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첫 번째 대상국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1951년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지원 이민자가 들어오게 되었다.<sup>61)</sup> 영국 이외의 국가 출신 지원 이민자를 허용하는 제도는 1958년 말까지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서독으로 확대되어 이들 국가 출신 지원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원 이민제도의 성격도 바뀌는데, 이전까지 지원 이민자가 단순히 인구증가(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원 이민자는 숙련된 상인, 농장 노동자와 필수 산업에 필요한 숙련공으로 제한되기 시작했다.<sup>62)</sup>

---

2022. 1. 20).

- 60) 아동 이주계획(Scheme of child migration)은 1954년까지 계속되는데, 전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을 부모의 동의하에 아동복지감독관의 승인을 통해 뉴질랜드로 입양시키는 제도였다. 이를 통해 1951년 107명, 1952년 99명, 1953년 87명, 1954년 68명으로 총 530명의 영국 청소년이 뉴질랜드로 입양되었다. 1956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6/NZOYB\\_1956.html?\\_ga=2.7730359.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23512](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6/NZOYB_1956.html?_ga=2.7730359.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23512) (검색일: 2022. 1. 20).
- 61) 1951/5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1-52/NZOYB\\_1951-52.html?\\_ga=2.260206925.1131458377.1627625928-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18201](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51-52/NZOYB_1951-52.html?_ga=2.260206925.1131458377.1627625928-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18201) (검색일: 2022. 1. 21).
- 62) 196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60/NZOYB\\_%201960.html?\\_ga=2.87939229.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5709](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60/NZOYB_%201960.html?_ga=2.87939229.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5709) (검색일: 2022. 1. 21).

1960년을 기점으로 뉴질랜드의 지원 이민계획은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위해 최대 4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졌고, 1961/62년 최대 5,000명까지 지원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되었다.<sup>63)</sup> 그러나 이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1963년에서 1964년까지 그 수가 4,500명으로 줄었고, 다시 3,500명으로 축소되었다. 1965년 일시적으로 지원 이민자를 4,000명으로 늘리지만, 1967년 중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원 이민계획이 축소되었고, 1968년 3월까지 1,500명의 지원 이민자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서독에서 지원 이민자 모집을 중단했다.<sup>64)</sup>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197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는데, 기존의 지원 이민제도와 병행되던 보조금 제도(Subsidy scheme)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다. 연간 1,500~4,500명으로 제한되던 보조금 이민의 할당량이 폐지되고, 9월부터 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 모집을 위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 보조금 이민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민자 모집은 국가 주도에서 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고용주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고 할 수 있다.<sup>65)</sup> 지원 이민자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연간 500명으로 제한되고, 자격 조건도 노동부가 승인한 특정 직종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다.<sup>66)</sup> 이처럼 1970년대 뉴질랜드 이민정책은 기술 이

63) 1961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61/NZOYB\\_%201961.html?\\_ga=2.17216444.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6422](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61/NZOYB_%201961.html?_ga=2.17216444.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6422) (검색일: 2022. 1. 21).

64) 1964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64/NZOYB\\_1964.html?\\_ga=2.189333038.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8128](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64/NZOYB_1964.html?_ga=2.189333038.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8128); 1968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68/NZOYB\\_1968.html?\\_ga=2.85384476.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8916](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68/NZOYB_1968.html?_ga=2.85384476.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8916); 1969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_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69/NZOYB\\_1969.html?\\_ga=2.8377527.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18](https://www3.stats.govt.nz/_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69/NZOYB_1969.html?_ga=2.8377527.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18) (검색일: 2022. 1. 21).

65) 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고용주가 항공료의 4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박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00\$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고용주는 이민자의 교통비용과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혼 이민자를 위한 숙소를 제공해야 했다.

66) 197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70/NZOYB\\_1970.html?\\_ga=2.108002311.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18](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70/NZOYB_1970.html?_ga=2.108002311.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18)



민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이민자로 모집하기 위해 런던의 뉴질랜드 하우스, 헤이그의 뉴질랜드 이민대표부와 로스앤젤레스 주재 뉴질랜드 총영사관으로 신청 기관을 확대했다.<sup>67)</sup>

1969년까지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지원 이민계획은 1975년 4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연말에 집권한 3차 국민당 정부는 기술 이민 수요가 많이 늘어날 때 재도입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보조금 제도의 중단을 최종확정했다. 이로써 뉴질랜드의 이민정책도 1975년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1947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지원 이민자(보조금 이민자 포함)의 규모와 출신국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이민제도가 시행된 기간은 1947년부터 1975년까지였지만, 1975년에 신청한 이주자들이 다음 해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입국은 1976년까지 진행되었다. 30년간 입국한 총 111,978명의 지원 이민자와 보조금 이민자 중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자가 90.4%를 차지했다. 1951년부터 영국 이외의 유럽국가 출신으로 총 11,026명의 지원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8,721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표 12) 1947년~1976년(3월 31일 기준) 지원 이민자(보조금 이민자 포함) 입국 통계

(단위: 명)

연도	합계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위스	그리스	미국	기타*
1947	158	158								
1948	1,140	1,140								
1949	1,527	1,527								
1950	2,532	2,532								

[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8872](https://www3.stats.govt.nz/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8872) (검색일: 2022. 1. 21).

67) 1973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73/NZOYB\\_1973.html?\\_ga=2.86896669.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07](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_1973/NZOYB_1973.html?_ga=2.86896669.461231412.1627881251-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107) (검색일: 2022. 1. 21).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

1951	2,928	2,873	55							
1952	4,949	3,849	1,100							
1953	7,581	4,872	2,709							
1954	6,299	5,611	688							
1955	4,332	3,880	452							
1956	5,123	4,732	391							
1957	4,593	4,172	252	139	30					
1958	4,579	4,070	245	44	69	106	45			
1959	4,678	4,343	141	36	35	92	31			
1960	2,549	2,360	90	25	39	13	22			
1961	2,231	2,217	12	2						
1962	3,584	3,474	84	14			10			2
1963	4,532	4,283	42	33	27			137		10
1964	4,347	4,171		6	16	5	14	130		5
1965	4,400	4,300		9	12	5	11	29		34
1966	4,047	3,963		19	7	8	27	18		5
1967	4,097	4,020		9	9	10	36	11		2
1968	2,764	2,732		2	4	5	17	4		
1969	490	485			2		2	1		
1970	382	377				2		1		2
1971	539	532				4	3			
1972	5,148	4,556	434		4	6	37		106	5
1973	4,138	3,459	550		14	4	37		68	6
1974	6,755	6,140	493	1	10	2	41		59	9
1975	8,787	8,186	522		4		29		36	10
1976	2,769	2,240	461		11		20		33	4
합계	111,978	101,254	8,721	339	293	262	382	331	302	94
비율	100%	90.4%	7.8%	0.3%	0.3%	0.2%	0.3%	0.3%	0.3%	0.1%

\* 기타: 벨기에, 스페인, 몰타, 프랑스  
출전: 1951/52~1977 뉴질랜드 공식 연감.

30년간의 지원 이민자의 출신국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 후 시행된 마지막 지원 이민제도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제도 도입 당시 표 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사회의 ‘영국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71년~1891년, 1904년~1941년 사 이에 진행된 이전의 지원 이민자 제도가 영국계 인구의 절대적 우위를 유 지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47년 이후의 지원 이민제도 도 동일한 성격을 유지했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차 대전 이전까지 뉴질랜드 인구구성에서 나타났던 영국계 인구의 절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뉴질랜드는 이민정책에서 여 전히 ‘백인성(whiteness)’를 넘어선 가장 ‘영국적인(british)’ 국가로 남았

다는 것을 보여준다.<sup>68)</sup> 1947년~1976년 사이에 진행된 지원 이민제도가 영국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비슷한 시기인 1952년부터 1976년 사이에 뉴질랜드로 들어온 전체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별 현황<sup>69)</sup>을 정리한 표5)에서 보듯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이민자가 전체 이민자의 64.96%를 차지하고 있다. 전후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정책이 ‘백호주의(White Australia)’<sup>70)</sup>를 표방했듯이, 같은 기간 뉴질랜드도 ‘백인 뉴질랜드주의’의 이민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1952~1976 유입 이민자의 출신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영국	폴리네시아 제도*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미국	기타	합계
명	182,856	19,097	6,742	368,285	38,742	31,893	4,213	24,961	171,567	848,356
%	21.55	2.25	0.79	43.41	4.57	3.76	0.50	2.94	20.22	100.00

\* 쿡, 니누에, 피지, 서사모아  
출전: 1953~1977 뉴질랜드 공식 연감.

그러나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전후 뉴질랜드의 이민제도는 인구 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다. 표6)에서 보듯이, 뉴질랜드 전체인구는 1952년 200만 명을 넘어섰고, 1973년 3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인구증가에서 이민증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1947년부터 1976년 사이에 증가한 1,325,226명을 같은 기간 913,432명의 누적 이민인구와 단순 비교하면, 그 비중은 68.92%에 달한다. 이런 단순 비교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뉴질랜드의 인구변화에서 이민인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지원 이민자의 누적 합계 111,978명은 1,325,226명의 전체인구증가에서 8.45%를 차지한다. 지원 이민자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들어온다는 점과 뉴질랜드에서 영구 또는

68)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134쪽.

69) 1947년부터 1951년 사이 국가별 이민자 통계는 뉴질랜드 공식 연감에서 확인할 수 없음.

70) Thomas Keneally, *Australians. A Short History* (Sydney·Melbourne·Auckland·London: Allen&Unwin, 2016), pp. 506-515, 592-602, 871-872, 927f.

장기간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지원 이민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 의미는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지원 이민제도가 종식된 1976년 이후의 1970년대 마지막 3년 동안의 이민 관련 통계 표7)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마오리 인구를 포함한 전체인구는 매년 감소해, 1977년 3,131,900명이던 인구가 1979년에는 3,150,900명으로 줄었다. 이런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유출 이민인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3년 동안 매년 유출 이민자가 유입 이민자보다 많아, 1977년에는 이민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가 19,072명, 1978년에는 26,708명, 1979년에는 40,200명으로 매년 2배가량씩 증가해, 3년간 이민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는 총 85,980명에 달한다. 이런 이민인구 감소는 무엇보다도 1970년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석유 파동에 의한 경기침체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sup>71)</sup>

표 14) 1947~1976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단위: 명)

연도	총인구 (마오리 포함)	전체 이민			지원 이민자	유입 이민자 중 지원이민자 비율(%)
		유입 이민	유출 이민	이민자 총계		
1947	1,823,074	8,106	6,051	2,055	158	1.95
1948	1,861,923	9,648	5,769	3,879	1,140	11.82
1949	1,902,655	11,387	6,679	4,708	1,527	13.41
1950	1,927,629	17,701	6,886	10,815	2,532	14.30
1951	1,970,522	18,234	7,788	10,446	2,928	16.06
1952	2,024,556	24,922	7,300	17,622	4,949	19.86
1953	2,074,781	29,005	6,271	22,734	7,581	26.14
1954	2,118,434	24,896	7,048	17,848	6,299	25.30
1955	2,164,734	19,453	9,012	10,441	4,332	22.27
1956	2,209,132	20,878	9,436	11,442	5,123	24.54
1957	2,262,814	23,030	9,220	13,810	4,593	19.94
1958	2,315,900	26,254	8,108	18,146	4,579	17.44
1959	2,359,746	24,852	10,985	13,867	4,678	18.82
1960	2,403,567	20,294	13,420	6,874	2,549	12.56
1961	2,463,241	21,424	14,848	6,576	2,231	10.41
1962	2,520,670	32,769	12,691	20,078	3,584	10.94
1963	2,566,915	32,589	14,454	18,135	4,532	13.91
1964	2,616,970	34,234	14,903	19,331	4,347	12.70

71) 1974년 뉴질랜드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1975년 더욱 악화해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5% 이상 증가했다. Janine Hayward, Richard Shaw, *Historical Dictionary of New Zealand* (Lanham·Boulder·New York·London: Rowman&Littlefield, 2016), pp. xlii-xliii.

1965	2,663,843	35,446	18,159	17,287	4,400	12.41
1966	2,712,250	35,299	18,589	16,710	4,047	11.46
1967	2,747,093	38,999	21,128	17,871	4,097	10.51
1968	2,776,265	30,660	28,472	2,188	2,764	9.02
1969	2,804,059	23,225	29,802	-6,577	490	2.11
1970	2,852,137	26,825	29,822	-2,997	382	1.42
1971	2,899,067	39,377	38,165	1,212	539	1.37
1972	2,960,996	45,099	37,546	7,553	5,148	11.41
1973	3,026,930	54,651	35,483	19,168	4,138	7.57
1974	3,094,700	69,815	42,338	27,477	6,755	9.68
1975	3,127,900	65,900	43,461	22,439	8,787	13.33
1976	3,148,300	48,460	43,160	5,300	2,769	5.71
기간 누적 합계		913,432	556,994	356,438	111,978	12.26(31.42)*

\* ()안은 기간 내 이민자 총계에서 지원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  
출전: 1951/52~1977 뉴질랜드 공식 연감.

표 15) 1977~1979 뉴질랜드 이민 관련 통계

(단위: 명)

연도	총인구 (마오리 포함)	이민자 총계	유입 이민자	유출 이민자
1977	3,151,900	-19,072	37,020	56,092
1978	3,151,400	-26,708	36,972	63,680
1979	3,150,900	-40,200	40,808	81,008
기간 누적 합계		-85,980	104,800	222,780

출전: 1980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역사적으로 세 번에 걸친 지원 이민제도를 통해 뉴질랜드는 영국계 이민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변화된 세계질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통의 고수는 인구학적으로 뉴질랜드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노동시장 중심의 이민정책을 꾀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 Ⅲ. 지원 이민제도 그 이후: 기여도(Selection on Merit) 중심의 이민정책

187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뉴질랜드의 지원 이민제도는

이후 100여 년 동안 뉴질랜드 인구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870년 마오리 인구를 제외하고 25만6천여 명이었던 뉴질랜드 전체인구가 1979년 315만여 명(마오리 인구 28만여 명 포함)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유입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198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영토 크기와 비교해 인구가 작은 국가로 남아 있었다. 1980년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의 인구가 80만 명을 웃돌고, 수도인 웰링턴은 59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sup>72)</sup> 이처럼 도시화의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1970년대 기술 이민자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의 변화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오히려 1970년대 말부터 영국계 이민을 주 대상으로 시행된 지원 이민제도로 형성된 백인 뉴질랜드주의적인 인구구성의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새벽 습격(Dawn Raids)’<sup>73)</sup>이었다. 20세기 초반까지 중국인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점<sup>74)</sup>을 고려한다면, 폴리네시아 이민자들은 전후 뉴질랜드 인종주의의 새로운 희생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뉴질랜드 전체인구에서 폴리네시아 출신은 2,159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지만, 1950년대 들어서면서 그 수가 증가해 1961년 14,340명으로 전체의 0.5%로 늘었고, 1966년 26,271명(1.0%), 1971년 43,752명(1.5%)으로, 그리고 1981년 93,941명(3.0%)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런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

72) 1981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81/NZOYB\\_1981.html?\\_ga=2.228365661.1510875085.1644991466-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605](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81/NZOYB_1981.html?_ga=2.228365661.1510875085.1644991466-1552793408.1609743625#idchapter_1_9605) (검색일: 2022. 1. 22).

73) “The dawn raids: causes, impacts and legacy”, *New Zealand History*, <https://nzhistory.govt.nz/culture/dawn-raids>; 이 사건에 대해 2021년 8월 1일 아던(Jacinda Arden) 뉴질랜드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New Zealand Dawn Raids: Jacinda Ardern formally apologises”, *BBC News*,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046178> (검색일: 2022. 1. 22).

74) 뉴질랜드 정부는 공식적으로 1881년부터 중국인민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1896년부터 강화된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제한규정들은 1934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944년까지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1926년부터 중국인에게 영주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Chines”,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govt.nz/en/chinese/page-3> (검색일: 2022. 1. 22).

공격은 실업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확대와 이를 부추기는 언론의 태도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벽 습격’의 발단이 된 것은 폴리네시아인들이 뉴질랜드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방문 비자로 입국한 폴리네시아인들이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어서 뉴질랜드에 머무는 것에서 발단이 되었다. 1968년 개정 이민법 33(a)조를 근거로 1974년 커크(Norman Kirk)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뉴질랜드 영토에 속하지만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서사모아와 통가인들에 대해 경찰공권력을 발동했다. 특히 1975년 총선 기간 중 국민당(National Party)은 입국 이민자를 3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축소하는 선거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확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오클랜드시를 중심으로 모든 곳에서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불심검문 등을 통해, 소위 ‘불법체류자’를 색출해 내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sup>75)</sup>

물론, ‘새벽 습격’ 사건을 계기로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뉴질랜드의 인종주의 정책과 이민정책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sup>76)</sup> 결국, 뉴질랜드 정부의 백인 중심 이민정책은 (영국 또는 유럽계) 지원이민제도가 종식되기 한 해 전인 1974년 새로운 비 인종주의적인(non-racist) 이민정책 도입으로 종말을 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인을 제외한 모든 이민자는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고, 영주권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가 아닌 기술과 자격을 기준으로 주어지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지원 이민제도의 중단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도입은 안정적인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1975년부터 1991년 사이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결과는 “많이 떠나고, 더 적게 들어왔다(many leave, fewer arrive)”.<sup>77)</sup> 이것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75) 1,000명을 불심검문 해 20명 미만의 ‘불법체류자’를 찾아냈다. “The dawn raids: causes, impacts and legacy”, *Ibid*.

76) 폴리네시아인들이 ‘폴리네시아 팬터스(Polynesian Panthers)’와 같은 정치 단체를 조직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인종평등 시민협회(Citizens Association for Racial Equality, CARE)’, ‘오클랜드 인종주의와 차별 위원회(Auckland Committee on Racism and Discrimination, ACORD)’와 같은 단체들이 폴리네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 조직되었다.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 The end of a ‘white New Zealand’ policy”,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history-of-immigration/page-15> (검색일: 2022. 1. 22).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표8)에서 보듯이, 1980년부터 1984년까지 5년간 뉴질랜드의 유출입 이민자는 6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런 이민인구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유출 이민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다른 대륙으로의 유출 이민은 유입 이민자보다 적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뉴질랜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찾기가 손쉬운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이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주비용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주 목적지로 선택되고 동시에 문화적 동질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뉴질랜드 유출입 이민 현황(1980~1984)

(단위: 명)

이민종류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합계	증감
유입	7,904	453	48,589	14,829	2,256	144,142	250	218,423	-60,986
유출	5,793	409	36,672	7,552	1,760	227,081	142	279,409	

출전: 1984, 1988~89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표7)과 표8)에서 보듯이, 기술 이민을 중심으로 바뀐 이민정책의 효과는 통계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오히려 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제도는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뀐 이민정책이 인종주의적이고 영국 중심적인 이민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이민자는 결국 유럽 또는 북미 출신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나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가 비유럽권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주는 국가는 아니었다는 사실도 중요했을 것이다. 실제로, 기술 이민자를 늘리기 위해 나이 제한을 18세에서 45세까지로 확대하고, 기혼자의 경우 4명의 부양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70년

77)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 Many leave, fewer arrive: 1975 to 1991", *Ibid.*



대 말부터 인도차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1984년 말까지 총 6,014명이 뉴질랜드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예외적 성과였다.<sup>78)</sup>

이민이 인구증가가 아닌 감소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민정책에서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했다. 1986년 이민정책 보고서는 다시 한번 인종과 국적에 기초한 이민정책과 완전한 단절을 강조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사업, 전문성, 나이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민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1987년 4월 21일 새로운 이민법<sup>79)</sup>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민자는 세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째는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기술 직종에 따른 이민을 허용하는 기술 이민과 함께 최소한 15만 뉴질랜드 달러(NZ \$)를 투자하는 조건의 투자 이민이었다. 기술 이민과 투자 이민은 영어 구사 능력을 심사하는 면접을 통과해야 했다. 다음으로 강조된 이민기준은 가족 재결합이다. 1987년 이민법에 따라 세계 다른 곳에 직계 가족이 없고, 뉴질랜드에 직계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민 규제가 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민이 허용되었다. 1987년 이민법의 기준에 따라 들어 온 이민자의 절반 이상은 기술 또는 투자 이민자였고, 약 3분의 1은 가족 재결합 이민자였으며,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민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sup>80)</sup>

---

78) 1985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85/NZOYB\\_1985.html?\\_ga=2.6483515.802173811.1629183039-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9529](https://www3.stats.govt.nz/New_Zealand_Official_Yearbooks/1985/NZOYB_1985.html?_ga=2.6483515.802173811.1629183039-1552793408.1609743625#idsect1_1_29529) (검색일: 2022. 1. 22).

79) “Immigration Act 1987”,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87/0074/latest/DLM108018.html> (검색일: 2022. 2. 4).

80)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 Many leave, fewer arrive: 1975 to 1991”,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Ann Beaglehole, “Immigration regulation - 1986-2003: selection on merit”,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immigration-regulation/page-5> (검색일: 2022. 2. 4).

표 17) 유출입 이민 현황(1980~1999)

(단위: 명)

연도*	총인구 (마오리 포함)	유입 이민	유출 이민	순이민 증감
1980	3,176,400	41,607	76,024	-34,417
1981	3,194,500	44,965	69,790	-24,825
1982	3,226,800	45,292	56,774	-11,482
1983	3,264,800	45,854	42,674	3,180
1984	3,293,000	40,705	34,147	6,558
1985	3,303,100	36,243	44,327	-8,084
1986	3,313,500	35,982	57,595	-21,613
1987	3,342,100	44,360	58,629	-14,269
1988	3,345,200	47,844	63,469	-15,625
1989	3,369,800	46,233	70,941	-24,708
1990	3,410,400	52,001	56,019	-4,018
1991	3,516,000	50,578	44,181	6,397
1992	3,552,200	48,144	43,504	4,640
1993	3,597,800	55,081	41,096	13,985
1994	3,648,300	64,382	44,525	19,857
1995	3,706,700	77,563	49,077	28,486
1996	3,762,300	79,005	54,212	24,793
1997	3,802,700	67,636	60,012	7,624
1998	3,829,200	58,220	64,485	-6,285
1999	3,851,100	59,743	68,772	-9,029
기간 누적 합계		1,041,438	1,100,253	-58,835

\* 1980년에서 1990년까지는 3월 31일 기준, 이후는 12월 31일 기준.  
출전: 1984, 1988~89, 199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  
"Population summary figures 1991-2018".

그러나 표9)에서 보듯이, 1987년 이민법 제정 이후 뉴질랜드의 이민 인구는 20세기가 끝나는 1999년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이민으로 인한 인구변화는 오히려 -58,835명을 기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87년 이민법 제정 이후 13년간의 누적 순이민 인구는 31,848명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통계가 이민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지만, 지원 이민제도의 종식 이후, 뉴질랜드 인구변화에서 이민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특히, 1980년대 대부분 산업 국가들이 자연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와 같은 인구 소국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감한 이민정책의 시행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87년 이후 시행된 기술 이민과 투자 이민 중심의

이민정책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뉴질랜드 정부가 기술 이민과 투자 이민을 중심으로 한 ‘좋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조건을 갖춘 이민 희망자가 뉴질랜드를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허용하는 이민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역사적·문화적·제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이민사에서 흔히 언급되는 ‘기회의 땅’이라는 수식어를 뉴질랜드에 붙일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결국, 영국에서 ‘친척(kite and kin) 데려오기’로 표현되었던 19세기 중반부터 1970년대 사이의 뉴질랜드 이민정책과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이민제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20세기의 마지막 20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인구 통계상 뉴질랜드는 가장 많은 순이민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성에서도 인종 및 출신 국가의 다양성이 많이 증가했다.<sup>81)</sup> 특히, 아시아계 인구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은 1991년 이후 뉴질랜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꾸준히 유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82)</sup>

#### IV. 지원이민제도의 한계

1850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170여 년간의 뉴질랜드의 인구변화를

- 
- 81)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뉴질랜드의 누적 순이민 증가는 585,501명이다. 이 기간에 순이민이 감소한 해는 2000, 2010~2012년 4년뿐이다. 그리고 2000년 3,873,100명이었던 총인구가 2020년에는 5,112,300명으로 증가했다. 인구구성에서도 2001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유럽계 인구가 80.1%에서 70.2%로 감소했다. 반면에 마오리 인구는 14.7%에서 16.5%로, 폴리네시아 인구는 6.5%에서 8.1%로, 아시아계 인구는 6.6%에서 15.1%, 중동과 남미와 아프리카 인구는 0.7%에서 1.5%로 증가했다(혼혈 등으로 중복으로 집계되어, 합이 100%를 넘는다). 201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archive.stats.govt.nz/~media/Statistics/yearbook/tables/pop-yrbook-2012.xlsx>; 뉴질랜드 통계청 2018 Census ethnic group summaries. <https://www.stats.govt.nz/tools/2018-census-ethnic-group-summaries> (검색일: 2022. 2. 4).
- 82)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 Multi-cultural New Zealand: 1991 onwards”, <https://teara.govt.nz/en/history-of-immigration/page-17> (검색일: 2022. 2. 4).

통계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영 제국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은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인구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87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지원 이민자 제도는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영국계 인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뉴질랜드의 인구정책이 지원 이민자 제도 한 가지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인구구성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돌이켜 보면, 뉴질랜드의 지원 이민제도는 시기별로 영 제국과 뉴질랜드 정부 모두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우선 1871년 시작된 첫 번째 시기에 뉴질랜드는 더딘 인구증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영 제국은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실업인구를 빠르게 줄인다는 목적이 유효했을 것이다. 당시 지배적인 제국주의 논리에서 확실한 식민정착지로서 뉴질랜드는 영 제국의 입장에서 불안한 사회문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반대로 지리적으로 고립된 뉴질랜드는 영 제국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영 제국 출신 인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호 이해관계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면서 더는 지속할 수 없었고, 결국 중단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두 번째 지원이민제도는 무엇보다도 양차 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이전에 시행된 지원이민제도의 성과와 비교해 미흡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전쟁과 산업화는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고, 영 제국 또는 영연방 중심의 세계질서는 더는 유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된 뉴질랜드의 지원이민제도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영국계 이민 중심의 이민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뉴질랜드의 인구구성은 영국(유럽)계 중심의 특징이 더욱 강화되었다.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1947년부터 1976년까지의 지원 이민제도도 그 성격상 이전 시기의 방식과 특징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론적으로 1871년 이후 세 번에 걸쳐 시행된 지원 이민제도는 인구학적으로 인구 소국인 뉴질랜드의 인구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유럽)계 인구의 절대적 우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이 인종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했다는 평가를 하게 만든다. 지원이민제도가 뉴질랜드

의 모든 이민정책을 설명할 수 없음을 분명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이 인구통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계량적인 분석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회사, 문화사, 일상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hjkwon@konkuk.ac.kr

주제어(Key Words):

뉴질랜드(New Zealand), 지원 이민(assisted Immigration), 영국계 이민(British Immigrants), 1870년 이민과 공공사업법(Immigration and Public Works Act 1870), 백인 뉴질랜드주의(White New Zealand)

투고일: 2022.03.28 심사일: 2022.05.01 게재확정일: 2022.05.02

<국문초록>

##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

권 형 진

이 논문은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의 특징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역사적으로 영제국의 식민지로 출발한 뉴질랜드의 인구구성은 이 두 가지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850년 이후 170여 년 동안 뉴질랜드 인구변화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1871년과 1979년 사이에 시행된 세 차례의 지원이민제도를 통한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정책이 이런 인구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2000년대까지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정책은 다양한 차별적 요소를 없앴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적극적인 다문화 이민정책이 도입된 21세기에 들어서 이민은 뉴질랜드의 인구구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에서 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차례에 걸친 지원이민제도는 전체 이민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유럽)계 백인 이민자만을 선호하는 이런 정책으로 뉴질랜드 인구구성의 백인 우선주의적(백인 뉴질랜드) 단일화가 이뤄졌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인종주의적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했다.

<Abstract>

**New Zealand's long-term demographic change and  
Immigration Policy: Focus on the assisted immigration  
scheme**

Kwon Hyeoungjin

This study is a demographic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population change in New Zealand.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New Zealand, which was geographically isolated and historically started as a colony of the British Empire,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se two factors. However, immigration has been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population growth in New Zealand for more than 170 years since 1850.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hree assisted immigration schemes between 1871 and 1979 played a decisive role.

Until the 2000s, the New Zealand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had not achieved much, even though it had eliminated discriminatory elements. In the 21st century, when an active multicultural immigration policy was introduced, immigration had an effect on the population composition of New Zealand. Historically, it can be said that immigration accounts for a very high proportion of New Zealand's long-term population change. In this situa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three assisted immigration schemes played a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overall immigration policy. This policy, which only favors white British (European) immigrants, has led to a white supremacist(White New Zealand) unification of New Zealand's population, which has historically led to criticism as a racist immigration policy.

## 참 고 문 헌

### 1. 사료

“A Bill to Make better provision for furthering British settlement in His Majesty’s Oversea Dominions”, <https://biblio.uottawa.ca/omeka2/jmccutcheon/items/show/17>

“An Act to provide for Immig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other Public Works and also to promote Settlement”,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Act 1870 (33 and 34 Victoriae 1870 No 77)”, pp. 1–19.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la187033a34v1870n77428/](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la187033a34v1870n77428/)

“Historical population estimates tables”, [http://archive.stats.govt.nz/browse\\_for\\_stats/population/estimates\\_and\\_projections/historical-population-tables.aspx](http://archive.stats.govt.nz/browse_for_stats/population/estimates_and_projections/historical-population-tables.aspx)

“Immigration Act 1987”,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87/0074/latest/DLM108018.html>

“Immigration and Public Works Loan Act 1870 (33 and 34 Victoriae 1870 No 80)”, pp. 345–348.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la187033a34v1870n80466/](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iapwla187033a34v1870n80466/)

“Immigration Restriction 1908”, No. 78, [http://www.austlii.edu.au/nz/legis/hist\\_act\\_1908/ira1908277.pdf](http://www.austlii.edu.au/nz/legis/hist_act_1908/ira1908277.pdf)

뉴질랜드 통계청, 2018 Census ethnic group summaries. <https://www.stats.govt.nz/tools/2018-census-ethnic-group-summaries>

1860년 뉴질랜드 통계, “No. 1. Table showing the estimated european population of New Zealand, in December 1860”, *Statistics of New Zealand for 1860*.

1893년~2012년 뉴질랜드 공식연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tats.govt.nz/indicators-and-snapshots/digitised-collections/yearbook-collection-18932012/>

2012년 뉴질랜드 공식 연감, <http://archive.stats.govt.nz/~media/Statistics/yearbook/tables/pop-yrbook-2012.xlsx>

### 2. 단행본

뉴질랜드 문화유산부 홈페이지, New Zealand History, <https://nzhistory.govt.nz/culture/immigration/home-away-from-home/summary>

A. James Hammerton, Alistair Thomson, *Ten pound Poms. Australia’s*



- invisible migrants* (Manchester·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5).
- James Jupp, ed., *The Australian People. An Encyclopdia of the Nation, its People and their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Janine Hayward, Richard Shaw, *Historical Dictionary of New Zealand* (Lanham·Boulder·New York·London: Rowman&Littlefield, 2016).
- Jock Phillips, Terry Hearn, *Settlers: New Zealand Immigrants from England, Ireland and Scotland 1800-1945* (Auckland: Auckland University Press, 2008).
-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Te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history-of-immigration/>
- Thomas Keneally, *Australians. A Short History* (Sydney·Melbourne·Auckland·London: Allen&Unwin, 2016).
- Wilfred David Borrie, *Immigration to New Zealand, 1854-1938* (Canberra: Demography Program, Research School of Social Scienc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1).

### 3. 논문 및 인터넷 자료

- 권형진, 「영제국의 확장에서 뉴질랜드 식민이민의 성격 - 1차 대전 이전까지의 인구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 『Homo Migrans』, vol. 22(2020).
- 이태숙, 「19세기 중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정책 - 웨이크필드파의 식민지 건설사업과 그에 대한 영국정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서양사론』, vol 29(1988).
- \_\_\_\_\_, 「빅토리아초기의 영국인과 뉴질랜드의 식민사업」, 『서양사론』, vol 38(1992).
- \_\_\_\_\_, 「E. G. 웨이크필드와 식민체계화 운동 1829-1850 - 웨이크필드파 식민운동의 사상적 기반」, 『서양사론』, vol 27(1986).
- Ann Beaglehole, “1881-1914: restrictions on Chinese and others”, ‘Immigration regulation’,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govt.nz/en/immigration-regulation/page-2>
- \_\_\_\_\_, “Immigration regulation - 1986-2003: selection on merit”,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immigration-regulation/page-5>
- “Assisted migration”, <https://www.nma.gov.au/defining-moments/resources/assisted-migration>
- “Assisted immigration to New Zealand 1947-1975: Page 1. Introduction”,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New Zealand History*, <https://nzhistory.govt.nz/culture/assisted-immigration-to->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

[nz-from-the-uk](#)

“Chines”,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govt.nz/en/chinese/page-3>

David Hamer, “Featherston, Isaac Earl”,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1990,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1f4/featherston-isaac-earl>

“Elizabeth – The Originals II: The 10 Pound Poms”, <https://www.youtube.com/watch?v=kKqb6JR4ABs>

“Immigration regulation – 1914–1945: restrictions on non-British immigration”, <https://teara.govt.nz/en/immigration-regulation/page-3?source=inline>

Jock Phillips, “History of immigration. 8. The great migration: 1871 to 1885”,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Te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t.nz/en/history-of-immigration/>

John E. Martin, “Bockett, Herbert Leslie”,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first published in 2000.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5b33/bockett-herbert-leslie>

Lisa Matthew, “The £10 ticket to another life”, *BBC News*, [http://news.bbc.co.uk/2/hi/uk\\_news/magazine/7217889.stm](http://news.bbc.co.uk/2/hi/uk_news/magazine/7217889.stm)

“New Zealand Dawn Raids: Jacinda Ardern formally apologises”, *BBC News*,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046178>

Pamela L. R. Horn, “Christopher Holloway: an Oxfordshire Trade Union Leader”, in *Oxoniensia*, Vol. 33(1968).

Raewyn Dalziel, “Vogel, Julius”,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2013, <https://teara.govt.nz/en/biographies/1v4/vogel-julius>

“Ten Pound Poms”, <https://www.youtube.com/watch?v=4GhVNPGgfjY>

“The dawn raids: causes, impacts and legacy”, *New Zealand History*, <https://nzhistory.govt.nz/culture/dawn-raids>